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문 수

강북구의회 제1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문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어사 박문수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24시간 늘 구민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박문수 위원장을 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 박문수 예산결산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안을 존중하고, 상임위의 안도 더 존중하고, 예결위원들의 안을 더더욱 존중한다. 그 후 예결위에서 상정된 안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단, 좀 더 방식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는 위원장으로서의 견해가 있다. 예산할 때 집행부가 모두 의회에 와 있고 또는 차수 변경을 통해 날을 세우며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론은 시간을 끌어봤자 결론은 똑같다. 시간이 연장된다 하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므로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예결위 역사상 최 단시간 내에 끝내보고 싶은 것이 견해이다."

– 우선 지원 사업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하여

"예산의 기본은 수행은 집행부가 하고 예산 삭감의 권한만이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의회에서 무엇을 하겠다 고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의 예산안을 보며 집행부의 시책과 정책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이 숫자로 표기된 것이다. 이표기가 잘 된 것인가의 여부와 시책의 옳고 그름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고 옳지 않은 시책이라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의회의 권한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 구민들께 한 말씀

"어려운 경제 속에서 복지의 최우선은 일자리 확대이다. 이번 예산을 보며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 눈에 뜨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가 없어 집행부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그러나 실망만 할 수 없는 것이 매칭사업이다보니 실질적으로 힘든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 바이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으며 그에 강북구민들께는 미안한 마음뿐이다." 〈박은주 기자 jej1718@naver.com〉

서울포스트 5면

강북구의회 박문수 예결위원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

"4선 의원으로서의 의정경험을 살려 예결특위 위원들과 함께 집행부의 예산안을 세밀히 살펴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고루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북구의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박문수 의원은 24시간 구민들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신념으로 박 의원의 사무실은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런 박문수 위원장으로부터 강북구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들어본다.

▲ 예결위원장 선임 소감

△ 우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되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의정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살려서 예결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예결특위 운영 계획은?

△ 예결특위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하겠다.

예산의 기본 원칙은 늘 해왔던 것처럼 원점에서 하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을 존중하되 사업의 선심성, 불요불급, 관행적 예산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하겠으며 구민의 복지수요와 안전한 환경조성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예산심사 어떤 방향으로 볼 것인지?

△ 예결위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이고, 또 특정지역이 아닌 강북구 전체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조정하겠다.

특히 초선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재선 의원들보다 예리한 판단과 새로운 시선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에게 기대하고 있다.

또 대립 건에 대해서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의원들간 표결로 해결할 것이다

▲ 이번 예산안 중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꼼꼼히 살펴 본 결과 예산편성과정에서 별 문제점이 없었고, 추경예산안에 낭비요인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번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예산심의 과정 중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예산반영되므로 복지수요를 충당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으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예산이 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실제 복지 예산은 매칭의 전제조건 때문에 갈수록 늘어 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우선적으로 지원할 사업이 있다면?

△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틈새계층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예산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 및 일자리창출, 복지·교육·안전 분야에 대한 사업비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예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예산서는 다음연도의 새로운 출발이지만 내년도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부분을 알 수가 없다. 지난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 주민들에게 한마디

△ 집행부에서 알차게 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사를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주민 편에서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